

튀어야 산다... 홈쇼핑으로 발길 돌리는 아이돌

오마이걸 반하나, 홈쇼핑 쇼케이스 새 앨범·자수티셔츠 뮤직상품 패진 슈주는 12일 마스크팩 완판 도전 기존 틀 깨 신진함·마케팅효과 극

튀어야 산다. 아이돌 가수들이 잇따라 홈쇼핑과 손잡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시선을 끈다. 그동안 가수나 새 앨범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쓰였던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나 쇼케이스 등 1차원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홈쇼핑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이용해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다. 점차 진화하고 있는 홍보 전략으로,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분위기다.

3일 오전 1시 걸그룹 오마이걸의 유닛 '오마이걸 반하나'가 롯데홈쇼핑에서 이색 쇼케이스를 열었다. 앞서 가수가 홈쇼핑에 앨범을 판매한 첫 사례는 2010년 유세운과 뮤지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그룹 UV가 CJ홈쇼핑에 출연한 일이다. 이후 2015년 루시드폴이 유희열, 정재형, 페퍼톤스 등 당시 소속사 안테나뮤직 기수들과 함께 홈쇼핑 생방송에 출연해 7집 음반을 판매했다. 당시 루시드폴은 직접 재배한 감귤과 음반을 뮤직상품으로 판매했다. 하지만 신곡을 선보이는 자리를 홈쇼핑으로 선택한 것은 오마이걸이 처음이다.



이날 오마이걸 반하나의 새 앨범과 함께 원송이 자수가 새겨진 티셔츠를 한정판 뮤직상품으로 판매했다. 홈쇼핑 특

성을 살려 구매자 중 추천을 통해 선물을 제공하는 등 실속과 재미를 동시에 잡았다. 오마이걸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이색적인 앨범 홍보 전략을 세우다

가 홈쇼핑과 연계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슈퍼주니어는 홈쇼핑과의 인연이 남다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규 8집을 발표하며 판매량 20만장이 넘는 타이틀곡 '블랙 슈트'처럼 검은 정장을 입고 홈쇼핑에 출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결국 판매량 20만 장을 돌파했고, 슈퍼주니어는 CJ홈쇼핑에 롱 패딩을 입고 등장해 무대도 꾸미고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했다. 덕분에 CJ홈쇼핑은 평소보다 6배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고, 준비한 상품 역시 목표 대비 2.7배의 주문수량을 확보했다.

슈퍼주니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2일 8집 리패키지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또 한번 홈쇼핑에 출연한다. 이날 슈퍼주니어는 CJ홈쇼핑에서 마스크팩을 판매하며 '완판 신화'에 도전한다.

이들에 앞서 지난달 그룹 아이린이 롯데홈쇼핑에 출연해 불고기세트 판매에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최근 들어 찾아온 아이돌 가수의 잇단 홈쇼핑 나들이는 마케팅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향후 활용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오마이걸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 측은 4일 "옛비슷한 홍보 수단에서 벗어난 색다른 기획이었다. 기존의 틀을 깨면서 신선함을 안기고 동시에 만족도까지 높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

13

2018년 4월 5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해시태그 컷



이하니는 봄나물 요리사

이하니가 봄을 맞아 봄나물을 "조물조물" 무치며 "나는야 요리 꿈나무"라고 자기소개를 한다. "식탁에도 봄이 찾아왔다"며 이하니는 다양한 봄나물을 밑반찬으로 준비하고, 이를 팬들에게 자랑했다. 민낫에 먹음직스럽게 무친 봄나물을 들고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그의 얼굴에서는 봄기운만큼이나 싱그러움이 묻어난다. 이정연 기자

#스포츠동아 #이하니 #봄나물 #요리꿈나무

알쓸연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연예 잡학사전>

실체처럼 만든 페이크다큐 '곤지암'의 공포감도 극대화

공포영화 '곤지암'이 개봉 2주째 평일에도 하루 8만 명 이상 모으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다. 4일까지 누적 관객은 160만 명을 넘어섰다.

'곤지암' 흥행요인으로 첫 손에 꼽히는 것은 '페이크 다큐멘터리' 기법이다. 엄연한 설정이지만 마치 사실처럼 연출하는 이 기법이 관객을 몰입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페이크 다큐는 리얼리티를 담보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을 차용해 허구의 상황을 실체처럼 만들어낸다. 다큐멘터리가 가진 사실성의 강점을 활용해 극영화에 쓰면서 어떤 장면이 실제이고 어떤 장면이 연출인지 구분하기 힘든 '효과'를 유발한다. 실화일지 모르다는 막연한 믿음도 안긴다.

'곤지암'은 극의 배경인 곤지암 정신병원이 '공포 성지'로 외신에 보도되며 화제를 모은 2011년, 제작자가 연출자 정범식 감독에게 '페이크 다큐로 공포영화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된 프로젝트다. 페이크 다큐가 공포영화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는 사실은 영화계에서 공감을 얻었지만 낯선 기법인 만큼 쉽게 시도되지 않았다.

'기담'(2007년)부터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까지 공포영화에서 실력을 발휘해온 정범식 감독은 "진짜 같은 공포 체험"을 위해 페이크 다큐 방식을 적극 받아들였다. 영화는 7명의 주인공이 유튜브 중계를 위해 카메라를 하나씩 갖고 곤지암 정신병원에 들어가 겪는 이야기다. 영화에 쓰인 90%의 촬영 분량은 이렇게 배우들이 직접 찍은 영상. 생생한 현장감이 그대로 담겼고, 덕분에 관객 역시 그 '현장'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페이크 다큐는 할리우드에서는 활발히 활용되는 기법이다. 1999년 제작비 2200만원으로 만들어진 공포영화 '블레이드 워터'가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해 2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본격 시작됐다. 이후 '파노라마 액티비티', '클로버필드' 등 히트작이 꾸준히 나왔다.

이해리 기자

나영석 PD가 그려낼 '예능인' 소지섭은?

tvN 예능 '숲속의 작은 집' 출연 새로운 예능유망주 탄생할지 관심

차분하고 느릿한 성격의 배우 소지섭과 버라이어티한 예능프로그램을 제작해온 연출자 나영석 PD가 만났다. 차승원 유해진 이서진 윤여정 정유미 등 평소 예능프로그램에서 보기 어려운 배우들을 출연시켜 이들의 재발견을 이끌어낸 나영석 PD를 통해 소지섭이 '예능 유망주'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높다.

소지섭과 나영석 PD가 손잡은 프로그램은 6일 첫 방송하는 tvN '숲속의 작은 집'이다. 다큐멘터리를 표방하는 '숲속의 작은 집'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전기, 수도, 가스가 없는 '오프 그리드 라이프'를 보여준다. '햇살 바라보며 잠에서 깨기' 등 소소한 미션을 수행하며 각박한 도시 삶에 지친 대중에 힐링을 전하는 취지다.

소지섭은 4일 열린 프로그램 제작발표회에서 "제 실제 모습은 50%정도 나온다. 시청자들이 저의 삶을 들여다보기도는 미션을 수행하는 저를 통해 대리만족하는 부분이 클 것 같다"면서 "시청자에게 힐링과 위안을 주고 싶다는 제작진의 의견에 동의해 같이 도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나영석 PD는 "소지섭은 두 번 정도 출연연예를 거절했다"면서 "소지섭은 거의 스ନ인 삶이다. 소지섭처럼 사는 게 심심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분위기



4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tvN '숲 속의 작은 집'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소지섭.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에 소지섭은 "잠들이 전 침대에 누워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TV 보거나 책 읽고, 컴퓨터 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재미를 위해 특별한 걸 하진 않는다. 멍하게 있을 때도 있고, 집에서 활기 넘치는 스타일이 아니다"고 했다.

소지섭의 '심심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 일상'이 결국 작위적 설정과 억지스러운 웃음 유도를 지양하는 프로그램 성격에 부합하는 셈이다. 제작진은 소지섭과 박신혜가 자연 속에서 유쾌하게 있는 그대로 담아 편안함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지섭은 "나 PD의 다른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백슬기 기자 bsm@donga.com



고현정 로맨스·임수정 휴먼·이유영 스릴러

<호랑이보다...>

<당신의 부탁>

<나를 기억해>

여배우들 봄 스크린 3색 대결

봄 스크린이 여배우들이 내뿜는 3색 에너지로 채워진다. 고현정과 임수정, 이유영이 4월 극장가에 주연영화를 내놓으면서다. 팬북을 내세우기도 하고, 패기 넘치는 도전을 감행한 주인공도 있다.

이들 세 배우가 내놓는 영화 소재와 장르는 제각각이다. 고현정은 일상을 그대로 담아낸 듯한 로맨스로, 임수정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 겪는 이야기를 풀어낸다. 비교적 연기 경력이 짧은 이유영은 좀 더 과감한 도전으로 미스터리 스릴러를 내놓는다.

개성이 다른 만큼 이들 배우가 풀어놓는 영화들은 관객의 흥미를 자극할 만하다.

고현정은 12일 개봉하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제작 영화사 벅물)을 통해 관객 앞에 다시 나선다. 영화 출연은 '미스 고' 이후 6년 만이다. 홍상수 감독의 작품들에 참여한 경험이 여러 번 있는 고현정은 당시 함께 작업한 이광국 감독의 데뷔작에 기꺼이 나서 해주었다. 시 만난 연인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특히 고현정은 최근 드라마 '리턴' 중도하차 사태를 겪으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현재 집행중인 상황. 때문에 이번 영화는 여러 모로 관심을 더하고 있

다. 드라마 상대역인 이진욱이 이번 영화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최근 열린 시상회에서 그는 "고현정은 연기를 그림처럼, 음악처럼 표현하는 배우"라며 영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연기자로 변화를 거듭하는 임수정은 19일 '당신의 부탁'(감독 이동은·제작 벅물)을 내놓는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아이가 찾아오면서 겪는 여자의 복잡한 심리를 그린 작품. 멜로의 주인공으로 익숙했던 임수정이 이번에는 남편과의 사별, 느닷없이 나타난 남편의 아들과 관계 맺으면서 겪는 깊은 이야기를 관객에 전한다.

이유영은 산뜻한 볼카는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호기심을 당기는 미스터리 스릴러를 들고 온다. '당신의 부탁'과 같은 날 개봉하는 '나를 기억해'(감독 이한욱·제작 오아시스이엔티)이다. 범죄 피해에 연루된 주인공이 전직 형사와 사건을 파헤치는 내용이다. 앞서 영화 '그놈이다'와 OCN 드라마 '터널'을 통해 스릴러를 소화한 이유영이 또 한 번 같은 장르에서 실력을 선보인다.

이유영은 "'스릴러 퀸'이라는 말을 듣는데 그에 맞는 실력인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 시나리오를 읽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11024@donga.com

"장자연 진실 밝혀달라" 재수사 급물살

'미투' 운동 계기로...23만명 청원 단역배우 자살사건도 재조사 촉구

성폭력 피해를 입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연기자 고장자연과 한 단역배우 사건의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건 당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난 여론이 여전한 상태에서 최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과 맞물려 국민적인 관심이 증폭된 결과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장자연

성절대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나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한다. 장자연은 2009년 3월 기업인과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 성절대 강요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파장이 컸지만 당시 검찰은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성상납 혐의를 받은 인사들은 전부 무혐의 처분돼 논란이 컸다.

장자연 사건은 '미투' 운동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연예계에서 거침없이 쏟아지

는 성폭력 피해와 폭로 속에 '장자연 사건을 제대로 해결했다면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다'는 여론도 힘을 얻었다.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월 26일 게재됐고 마감일인 3월28일까지 총 23만 5796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20만 명이 넘는 청원에는 청와대나 관련부처가 직접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답변 대기 중이다.

장자연 죽음과 더불어 '미투' 국면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사건은 단역배우의 자살이다. 2004년 일어난 이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3월3일 시작해 마감일인 4월2일까지 22만2770명의 동의를 얻었다.

당시 대학원생이던 A씨는 드라마 단역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현장 담당자 등 남성 12명으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뒤, 경찰에 고소했지만 가해자의 협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에게 단역 아르바이트를 권한 여동생이자 당시 백댄서로 활동한 B씨도 언니를 따라 스스로 세상을 등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단역배우 사건 해결을 위한 국민청원을 제기한 당사자는 "공소시효를 앞두고 경찰과 가해자를 모두 재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론이 고조되자 경찰청은 최근 20여명의 진상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당시 경찰 조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해리 기자